

없이 나열하는 노인의 목소리는 어떤 기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공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미사여구보다는 수수하고 솔직한 어조로 인상을 전하는 노인의 입담 속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자연이 우리 안에 쌓여간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아득히 멀리 있지만, 신의 섭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자연, 풍성한 먹거리를 배풀어주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아직 그 관대한 품을 잃지 않은 자연이다.

그러나 『폴과 비르지니』의 자연이 이렇듯 늘 풍요와 진기함으로 가득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 거부당한 두 여인을 받아들이고, 두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도맡았던, 자애로운 보호자로서의 자연은 돌연 그 얼굴을 바꾸고 죽음의 편에 선다. 갑작스레 찾아든 열대의 불벌더위는 지상의 모든 수분을 말려버리고, 뒤이은 폭풍우는 폴의 정원과 비르지니의 쉼터를 황폐화시킨다. 생제랑호를 난파시킨 태풍은 비르지니의 목숨을 앗아가고, 결국 두 가족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 이러한 자연의 무자비함은 폴과 비르지니가 어른들의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죄책감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그려진다. 자연의 가르침에 따라 신랄하고 아름답게, 친남매처럼 자라던 두 아이는 사춘기에 이르면서 우애로서의 감정이 점차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런 변화가 낯설고 두려웠던 나머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레 방황한다. 이 억눌린 정열의